



**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 
예방 접종 권고**

**백일해**

#백일해

# 백일해

## (Pertussis, Whooping cough)

‘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.’라는 뜻  
보르데텔라 백일해균(*Bordetella pertussis*)의  
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 
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

백일해균은 인간에게만 감염병을 발생  
백일해에 걸렸으나 특징적 소견이 없는  
성인이 주요 감염원 역할을 함

재채기, 기침 등으로 나온 비말이나  
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며,  
감염성이 매우 높아  
가족 내 2차 발병률이 약 80% 달함

영유아의 발병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,  
나이가 어릴수록 사망률도 높아  
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



# 백일해 증상

백일해는 7~10일 정도의 잠복기 후  
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며, 증상에 따라 크게  
아급성기(카타르기), 급성기(발작기), 회복기로 나눔

이때 증상과 함께  
중이염, 폐렴, 속발성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

## 아급성기 (카타르기)



- 1~2주
- 콧물, 눈물, 기침,  
낮은 발열, 상기도  
감염 등

## 급성기 (발작기)



- 4주 이상
- 발작성 기침,  
'흡' 하는 소리,  
안면 홍조, 충혈,  
구토, 무호흡,  
청색증, 코피 등

## 회복기



- 1~2주
- 기침, 구토 등  
(서서히 감소)

# 백일해 환자의 증가

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 
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 
백일해 총 환자는 83명으로  
2022년 동일 기간 총 환자가  
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**3배 이상 증가**

나이대별로는  
**12세 이하 소아가 약 70%,**  
**60세 이상 노인이 약 20%**로 대부분을 차지

국내 백일해(DTaP) 예방 접종률은  
1~4차(1~3세)까지는 95% 수준을 유지하지만,  
5~6차(6세, 12세)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


백일해 환자 발생 누계(1.1~11.4)

2021년	2022년	2023년
15명	25명	83명

출처: 질병관리청 보도자료

# 백일해 예방 접종

환자 다수가 단체 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소아인 만큼  
6차까지 적극적인 예방 접종이 필요하며,  
성인도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음

## 백일해(DTaP) 표준 접종

- 기본 접종 3회: 생후 2, 4, 6개월
- 추가 접종 3회: 생후 15~18개월, 4~6세, 11~12세

## 백일해 표준 접종 이후

- 추가 접종 1회: 11세 이후(가능한 11~12세) Tdap 접종
- 이후 10년마다 Td 백신 접종

## 백일해 백신 종류

- 디프테리아(Diphtheria), 파상풍(Tetanus), 백일해(Acellar Pertussis)
- 알파벳의 대문자·소문자는 항원량의 차이 (대문자 > 소문자)

DTap	접종나이 6세미만 / 항원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
Tdap	접종나이 11세이상 어린이와 성인 항원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
Td	항원 디프테리아, 파상풍 (백일해 미포함)

# 백일해 감염 예방

높은 감염성을 가진 질환으로  
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함

- 소아는 예방 접종 일정에 따라 모든 예방 접종 시행하기
-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
- 사람이 많거나,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
- 기침 시 옷소매, 휴지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
- 사용한 마스크, 휴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외출 후, 식사 전,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



백일해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 
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과  
일상 속 예방을 실천해야 하며,  
증상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 
적극적으로  
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**아이가 불완전 접종 상태일 경우  
감염에 취약하고, 전파 우려도 크기 때문에  
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의료기관을 방문해  
추가 접종 해주시길 바랍니다.**

